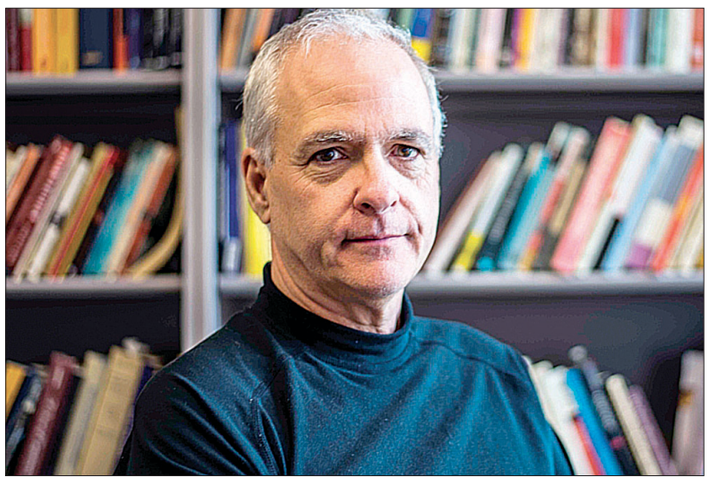
“서양사회, 불교에 원하는 것 따로 있어”

29년 불교 교육자 뉴랜드 교수, 학내지 인터뷰

1988년부터 CMU서 불교 교육
제프리 홉킨스 아래서 수학해
“서양인들, 불교≠종교라 생각”
시대 따라 교육 내용 변화시켜



가이 뉴랜드 교수(사진)는 4월 11일 학내지 CM-Life와 인터뷰서 30여년 불교 교육의 경험과 철학을 밝혔다. 사진출처=CM-Life

불교를 가르치지만 또 여전히 불교를 공부한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다.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교(CMU)에서 30여년 가까이 불교 학술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쳐 온 가이 뉴랜드 교수 이야기다. 불교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우린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추상적인 한 마디로 화두를 던지는 뉴랜드 교수. CMU 학내지 CM-life와 4월 11일 인터뷰서 자신의 불교 교육 철학을 밝혔다. 다음은 뉴랜드 교수와 일문일답.

종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불교 전통은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다가가는 방법이 더 가볍고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 즉 사물의 본질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방법은 불교의 관용과 연민이 관련 있다. 올바른 관점을 보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관용의 마음으로)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관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전통을 가르치는 동안 무엇을 깨닫나?

불교는 종교이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교의 일부를 좋아할 뿐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교가 종교란 생각을 거부하고, 단지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종교가 바로 삶의 방식이다.(양분된 것이 아닌) 불교도 마찬가지다. 교도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종교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CMU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불자가 되길 원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 자체가 그들의 흥미를 끌만한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

다만 많은 대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성장의 과정이며, 어른으로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된 방법 중 하나는 불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불교를 배운다.

80년대 후반과 비교해 철학 및 종교학은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 우리 대학은 9.4%의 예산을 삭감 받았고, 명백히 학교 행정부로부터 소외됐다. CMU는 역사, 언어, 철학 및 종교 교육의 가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학문들은 더 이상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 CMU에서 일하는 게 좋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여기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 내가 쓴 〈공허에 대한 개론(Introduction of Emptiness)〉이란 책도 교육 경험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이다.

30여년 교육하며 수업 커리큘럼도 시기마다 조정됐는가?

이제는 불자가 되는 게 중요치 않다. 서양인 중 불자의 비율이 늘고 있진 않지만, 불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단지 사람들은 불교로부터 (삶의 방식을)배우길 원하는 시대가 왔다. 나는 서양사회가 불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주목해 수업내용을 바꾸고 있다. 현재는 관용과 사랑, 친절의 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뉴랜드 교수는 1988년 CMU 교수로 부임한 후 수 차례 철학 및 종교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강단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종교 전통’, ‘불교전통’ 등 강의하기 시작했다. 뉴랜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일하는 최초 서양인 중 한 명인 제프리 홉킨스 교수 아래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국사원, 美교회 인수해 태국불교 알려

태국불자센터, 증축 기념 태국 전통 축제 열어

미국 도시에 있는 태국 사찰이 낙후된 교회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태국불교와 태국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언론사인 스타트리뷴은 4월 11일(현지시간) “세인트 루이스 파크에 있는 태국 사찰이 불교 명상뿐 아니라 태국어 및 풍습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개된 사찰은 ‘태국 불자 센터(Thai Buddhist Center)’로 ‘미네소타 왓타이 사원’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미네소타 왓타이 사원’은 2003년에 설립돼 수백 명의 불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찰이 엘크리버에 있을 때는 스님들이 명상과 염불을 할 수 있는 공간정도만 있었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로 45분 거리라 교통이 불편해 불자들이 쉽게 찾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미니애폴리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디 노리씨가 신도회장으로 선출되면서 2년 전부터 비워져있던 세인트루이스 파크 버치우드에 있는 루터교 교회 건물을 인수, 왓타이 사원 확장을 진행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기와 배관을 수리하고 부서진 창문을 교체하고 낙서된 벽도 새로 단장했다. 이후 이곳에다 불상들을 배치하고 명상공간으로 꾸몄다. 태국 불자 센터는 오는 7월 스님 두 분을 더 모시기 위해 그들을 위한 집도 마련한다.

건물이 완성되려면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지난 일요일에는 증축을 기념한 태국 전통 축제를 개최했다.

태국계 미국인들은 야자수와 열대과일무늬의 옷을 입고 퍼레이드와 전통춤 행사를 벌였으며, 방문객들에게는 파파야 샐러드와 버블티, 치킨 꼬치 등 태국음식을 대접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태국 사찰 ‘태국 불자 센터’는 낙후된 교회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태국불교와 태국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사진출처=스타트리뷴

잉 스리추챗 태국 불자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음식과 춤, 언어, 음악 등 태국문화를 배웠으면 한다. 이 장소만큼 태국을 알릴만한 적당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태국불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처에는 유대교 회당과 가톨릭 학교와 성당 등 이웃종교 시설들도 많다.

태국 불자 센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와 믿음이 공존하는 이 곳에서 서로 인정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지역민들에게 좋은 화합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치우드 거주민들도 태국 불자 센터의 입주를 환영했다.

마가렛 로그씨 버치우드주민연합회장은 “2년 동안 교회 건물이 비어 있어 내심 걱정했는데 새로 온 태국불자센터가 건물을 유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크 스파노는 “한 믿음 공동체(루터교)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공동체가 와 싹을 틔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불교협, 비구니 결혼식 동영상 유포 회사 고소

“불법피라미드 조직이 벌인 일 명예훼손 고소할 것”

중국불자협회가 비구니 결혼 파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미디어회사와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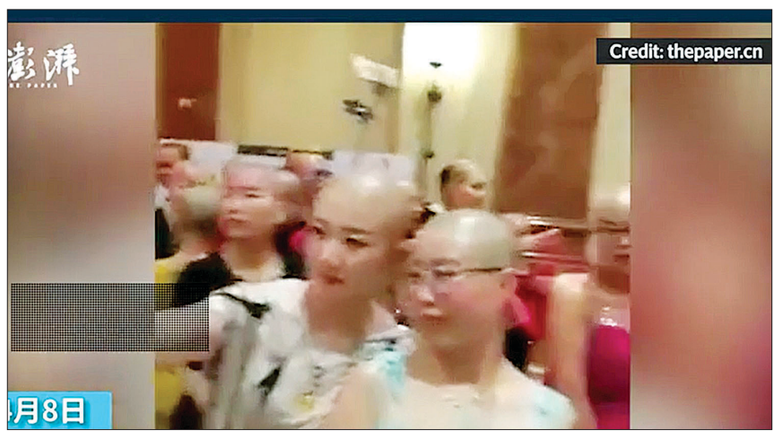
영국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4월 10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의 우타이산불자연합회(이하 WBA)는 비구니 스님들이 우타이산에서 진행된 비구니 결혼식에 참가한 동영상을 유포해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유포된 영상에는 호텔에서 기모노를 입은 삭발한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셀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웨이보에서 백만 명 가까운 사람이 보는 조회수를 올렸다.

동영상을 본 중국 불자들은 격분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부주의한 사회를 방치하는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웨이보 회원들은 “어떻게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영상을 게재 할 수 있게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토요일 WBA는 영상과 관련 “영상은 WBA 회원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Wuxingbi’라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원들이며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불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변호사를 선임해 불교신자들과 스님들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결혼 파티’라는 영상이 웨이보에서 백만 명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영상은 ‘Wuxingbi’라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원들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 정부 “인공청소 말도 안 돼”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위 정부 두둔 ‘논란’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역이 인공청소 논란에 반박하며 미얀마 정부는 갈등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4월 11일 보도했다.

타웅 툰 자문역은 “무슬림에 대한 인공청소를 실시한 바 없다”며 “그것은 갈등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정부는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잘못된 행동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역은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려 할 뿐”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차별이나 인공청소와는 무관하다”고 정부의 주장을 두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서부 라카인주(州)에 위치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난민수용소 폐쇄작업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난민들의 거취와 수용소 폐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아름 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